

민주당도 이재명도 혼돈에 빠졌다

6·1 D-6

박지현 '86오티론' 주장에 '자중지란' 계양을 '이재명 효과'도 미비 '전전긍긍'

국힘, 중원에 집결... '힘센 여당' 세몰이 충남서 교통·주거·은행 등 공약 봇물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효과'도 오르지 않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6 오티론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자중지란에 빠지는 형국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오티론'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앞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에, 당의 논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비상정계 권한 발동을 언급한 것에도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윤리심판원에 징계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사항"이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박 비대위원장이 쇄신안 발표를 두고 "금시초문이고 지금도 따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이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해 있지 않냐"라며 "사실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니

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이 후보는 지역 내 표심이 심상치않자 선거운동 전략을 수정하고 지역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다른 지역 유세 지원을 자제하고 자신의 선거구인 계양구에 머물며 지역 쟁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수시로 지역 주민을 만나는 일정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날도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빈도도 낮아졌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민들을 만날 때 일정을 공유하면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현장에 와서 대화 내용을 듣게 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서로가 편한 상태에서 만나야 마음의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유세방식 변화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중원으로 집결했다.

최근 여야가 각종 여론조사 등을 기반으로 자체 분류한 판세를 보면 총복은 국민의힘이, 세종은 민주당이 각각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대전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 위치한 김태홍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충청 선거전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대표)과 권성동·김기현 공동상임위원장 등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의 지역 공약이행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충남의 중대한 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 공약을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인천 섬으로 향하는 투표함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백령·대청·소청도에 보낼 투표함을 들고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GTX-C 전란 연장, 보령-조치원 내륙철도,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 이명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은행 부활 추진도 약속했다.

아울러 "많은 것 공약하는 이유는 충청도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확대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내놓은 48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상

당 부분을 충청에서 유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도 "원내대표로서 힘센 도지사 후보인 김 후보를 적극 도와서 국회 내에서 행정부를 독려하고 설득하는 역할 다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

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충청 연고를 부각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충청권 표심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무슨 연지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공세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강남~송파대로 잇는
현릉로 버스전용차로
2025년까지 뚫린다

강남~송파대로 잇는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내달 착공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강남대로 영동1교부터 현릉로 북정역까지 9.7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치 공사는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중앙버스정류소는 모두 20개가 신설된다.

현릉로 정계산입구교차로~내곡IC, 3.2km의 1구간은 내달 초 착공해 연말 개통한다. 1구간 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쇄하고, 도로 중앙에는 양방향 중앙정류소 8곳을 신설한다. 보행자 횡단보다 4개도 설치된다. 강남대로와 현릉로를 연결하는 2구간(영동1교~정계산입구교차로, 1.5km)과 3구간(내곡IC~북정역교차로, 5.0km)이 공사에 들어간다.

2구간 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분당선(양재시민의숲역)이 만나는 곳에는 가로변에 흩어져 있던 광역·간선·지선버스정류소를 통합해 도로 중앙에 정류소를 신설한다.

내년 2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신사역사

서울시, 영동1교~북정역 9.7km 구간 3개구간 순차적으로 20개 노선 신설

차로 완공 시 신사역사거리~내곡IC 버스속도 27% ↑ · 환승센터 등 연계

거리에서 내곡IC까지 버스 통행속도가 약 27%(시속 14.9km→19km) 빨라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현릉로 전체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하면 강남대로와 송파대로 구간을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고,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및 북정역 환승센터와도 연계된다.

특히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도로(내곡IC), 용인서울고속도로(현릉IC)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공사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고, 차로 폭을 조정해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 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6월 말 본격적인 공사 개시 시점에는 차로 적용과 공사장 주변 교통체계 변경 등이 불가피해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인근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 그동안 단절됐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함으로써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hmhc@jeonmae.co.kr

'진보교육감 전성시대' 저물고 '교육정책 지형' 바뀌나

건강관리 시작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진료원연선
문의 : 032-890-8700

8년 동안 13~14곳서 진보교육감 승리
올해 곳곳서 보수후보 선전·접전 양상
코로나19로 '학력격차' 등 이슈 급부상

6·1 지방선거에서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했다.

승리이유로는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금껏 결집력과 조직력이 강한 진보진영 후보들이 단일화를 바탕으로 선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프리미엄'도 크게 작용해 정

책 대결보다는 인지도를 앞세워 표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판세가 다소 달라져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은 격전지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보수 성향도 전진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 지역의 경우 KBS부산, 부산MBC라리 시청자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조사한 결과 현직 김석준 후보 지지율이 21.2%, 하윤수 후보 지지율이 15.4%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내에 있다.

울산 역시 국제신문이 리서치부에 의뢰해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하는 노옥희 후보의 지지율이

41.5%, 김주홍 후보는 40.7%로 백중세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남의 경우도 3선에 도전하는 박종훈 후보의 지지도가 39.4%, 김상권 후보가 37.5%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진보 성향 민병희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강원에서는 지지도가 가장 높은 신경호·유대균 후보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정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보수 성향의 임대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의 맞대결에서 임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에서 다소 앞선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후보들이 각자 유세를 펼치고 있다.

호남·충청지역은 진보성향 후보들이 안정적 지지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정책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여러 지역에서 보수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진보 후보들에게 맞대응한 것이 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 혁신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단데,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학생 간 학력 격차 이슈가 부각된 점은 현재 보수성향 후보들이 '학력 강화'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4년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몇 개 지역을 차지하느냐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2022 철원 고석정 꽃밭
시즌 봄 오픈 5.18 ~ 6.30
야간개장 6월 1일부터 18:00 ~ 21:00

너와 나를 잇는 철원한강!
세월을 품은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면
이내 펼쳐지는 광활한꽃밭의 향연, 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꽃과 별이 가득한 고석정 꽃밭에서 당신과 함께
you are so beautiful to me

Cheorwon 철원군

천연 온천수 '강천 힐링스파'로 힐링하러 오세요

전북 순창군 강천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천 힐링스파에 전국 단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순창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군은 매년 강천산을 찾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지 만들기 위해 국내 최상의 음용수 및 온천수(39.6℃)를 활용한 수(water)치유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됐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전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과 관광이 융복합된 새로운 힐링 관광산업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순창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설 명칭을 강천힐링스파로 확정하게 됐다.

2013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ICT 기반 힐링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 7년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마침내 개장했다.

지난달 14일 개장한 '강천힐링스파'는 지난 10일까지 1만6398명이 다녀갔다.

연면적 2904㎡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 스파에는 1층에 치유누리실, 사우나실 및 야외노천탕 2층에 족욕실, 도반욕실, 미생물아토피치유실, 켈백수면실 및 스넥코너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야외 온천정원에는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온천 족욕장과 다양한 포토존과 휴식공간을 마련한 동굴형체험관이 조성됐다.

1층 치유누리실은 지하 1.200m에서 솟아나는 강천 온천수를 이용해 수중운동용을 통해 건강증진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구성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허리, 허벅지, 발바닥을 효과적으로 마사지가 되도록 한 침대탕, 걸으면서 온열과 수압의 반복 자극을 통해 허리와 발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보행욕탕 그리고 바다마사지, 기포탕, 지압로 및 수중바이크 등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온천욕을 하면서 청정 순창을 느낄수 있는 노천탕 이용도 가능하다. (운영시간 09:00~18:00, 이용요금 대인기준



(야외노천탕)



(도반욕실)



(족욕체험)

10,000원, 수영복, 모자 지원)

2층 족욕카페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디톡스 족욕시설로 족욕을 통해 발의 혈관을 확장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노폐물 제거로 인해 체중이후 발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대인기준 5,000원, 소요시간 1회 40분)

근육 등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 등을 취하는 등 진정한 휴식을 체험할 수 있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대인기준 5,000원, 소요시간 1회 40분)

2층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부모님과 함께 스파를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트램펄린과 미끄럼틀, 어린 이용 짚라인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시설이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무료)

국내 최상 음용수·39.6℃ 온천수 활용 체험시설 조성
지난달 14일 개장 5월 10일까지 1만 7000여명 다녀가
치유누리실·야외노천탕·족욕실·동굴체험관 등 다양

2층 도반욕실은 족욕체험이 끝나고 이용하면 안성맞춤이다. 체온을 1℃ 높여주면 혈액순환 및 대사기능 향상되고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 60~70℃ 전후의 따뜻한 온열 도반욕 체험을 통해

길이 50m의 동굴형체험관은 다양한 LED조명과 동굴 내부를 흐르는 계류와 벽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류 중간중간 안개분수

가 뿜어져나와 음이온을 방출하고 있다.

온천수를 활용한 야외 족욕장은 1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강천산 산행후 온천족욕을 통해 산행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줄 시설이다. (이용시간 09:00~21:00, 이용요금 1,000원)

지하 791m에서 솟아나는 강천온천수는 2011년 2012년 한국의 좋은물로 선정되면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물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다만, 강천힐링스파가 조성되면서 온천정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한해 개방하고 있으며, 1인당 2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따뜻한 온천수를 이용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강천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족욕과 도반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야외정원)



(동굴체험관)



(강천힐링스파전경)

(순창군 제2경)

선제적 가뭄대책 추진...영농불편 해소 하상굴착 장비 임차료 지원 등

전북 순창군은 올해 예상되는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가뭄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상습적인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상굴착이 필요한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긴급 배정하는 한편, 1월부터 영농철 우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 공공관정 및 양상수 등 수리시설물 수시 점검 및 시설물 31개소에 대해 수리를 완료했다.

또한, 소형관정 설치 113개소, 영농불리지역 우수공급시설 설치 22개소에 대해 보조사업을 추진해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2회 추경에 소형관정 설치(추가 60개소) 보조사업 1억원, 공공용 양반관정 설치사업(5개소) 2억8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2억원, 구립 마흥저수지 보강사업비 7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창/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순창 청소년 댄스팀 국제교류 추진 립업팀, 연말 한일 비대면 합동공연

전북 순창군이 관내 청소년 K-pop 댄스팀인 립업(LEAP-UP)을 중심으로 일본 댄스팀과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 사업」에 순창군 생활문화동호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동호회 소속단체인 댄스팀 립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립업은 일본 교류 댄스팀인 스마일링을 위한 자체적인 댄스연습을 제작하여 K-pop 댄스의 기초와 스킬을 알리는 것은 물론 연말에는 한일 비대면 합동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립업 댄스팀의 리더인 김태희 학생(순창고 3)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공연을 못했는데, 비대면이긴 하지만 국제교류를 통해 립업을 널리 알리고, 함께 춤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설렌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국 우수청소년은 물론 지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25 전국매일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2022 다함께 웃는 파주

다함께 행복합니다
다함께 즐겁습니다



“응급상황시 10분내 병원 도착” 합의 위법 아냐



법원의 판결

인체의 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내 병원에 도착하도록 한 업무협약서 내용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 모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협약서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가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업무협약서 내용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

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때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데 병원 측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단순히 병원 도착시간을 정해둔 업무협약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만으로는 A씨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단순 도착시간 정한 합의 규정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월 26~40차례 정도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했는데 응급검사가 3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제주도, 일제 식민잔재 없앤다

실태조사후 청산계획 수립 착수 도교육청은 작년보다 운동 전개

제주지역에 일제 식민잔재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5일 도는 ‘제주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의 친일잔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식민잔재 현황을 조사, 청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건축물과 식재수목, 기타 상징물 등 공공기관의 식민잔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향후 청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올해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제주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활동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 계획에서는 공공기관 친일잔재 조사·연구를 통해 친일문화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5년마다 일제 식민잔재 청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넘어진 크레인

25일 오전 8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부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대형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크레인 과 주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다. 또 정리 과정에서 주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사진은 넘어진 크레인.

연합뉴스/ 안재영기자

경기북부지역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기획수사

경기북부소방-석유관리원 합동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 유통경로를 가져치지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최근 실시한 긴급회 내 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반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

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다.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장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의정부/ 강진규기자 kig@jeonmae.co.kr

논산시, 코로나19 방역·위생안전 다 잡았다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

충남 논산시의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안전 관리가 돋보였다.

시는 최근 민·관 협력을 통한 총합력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민·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방역 수칙 지도 매뉴얼을 수립해 철저한 관리에 나선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에 한시적 일차리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관내 3000여가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특별·집중·일반관리시설로 세분화해 위

협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순위로 주 1회 이상 방역수칙 이행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주 대상 1:1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방역수칙 민간 자율 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실제 현장에 잘 아는 자영업자가 지도원으로 투입돼 방역 수칙 계도 등에 큰 효과를 거뒀다. 또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 확진자 발생 및 전국 유행염소 확진자 사례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방역 조치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매뉴얼을 즉각 수정·변경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했다. 논산/ 박성하기자 psh@jeonmae.co.kr

휴대전화 넘기고 급전 ‘내구제 대출’ 조심

빌린 돈 수십 배 요금 부과 경찰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휴대전화를 넘기고 급전을 빌리는 ‘내구제 대출’이 판치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는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조치는 먼저 전단이나 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

광고 글로 피해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만 돈을 응통해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온다.

또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보이 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악용된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와 속칭 대표폰이 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피해자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내구제 대출’이 급전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여서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원기자 seo@jeonmae.co.kr

사건·사고

중국인 강도질 다음날 피해자에 발각 검거

50대 남성이 카페에서 강도질을 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우연히 발각돼 붙잡혔다.

2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경 부천시 심곡동 한 카페에서 점주인 5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24일 오전 9시 40분경 심곡동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가 이곳을 우연히 방문한 B씨에게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한 뒤 지인을 만나려고 이 카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응문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오세원기자 osk@jeonmae.co.kr

도로에 앉은 남성, 차에 치여 숨져

도로 위에 앉아있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파주시 탄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핀 뒤 도망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장소 주변을 수색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회차 후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B씨가 도로 위에 앉아있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해 여친 목 졸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시흥 장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씨(40)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B씨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 시간

‘후보자로론회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특별시시장선거 (초청)

2022.5.26.(목) 오후 11:00 | MBC KBS SBS

서울특별시시장선거 (초청 외)

2022.5.24.(화) 오후 03:00 | MBC

비례대표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초청)

2022.5.25.(수) 오후 04:00 | SBS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초청)

2022.5.23.(월) 오전 10:00 | KBS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YouTube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삼성생명

건강자산을 키우다 튼튼탄하게!

삼성생명 건강자산이
튼튼탄하게 벌어드립니다

삼성생명
건강자산



튼튼한 건강

바른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

튼튼한 보장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준비

탄탄한 노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후자산